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푸코의 고고학적 언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aeological Approach in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 Focusing on the Archaeological Statement of Foucault -

Author 박경애 Park, Kyung-Ae / 정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Post-doc, 디자인학박사
박영목 Park, Young-Mok / 정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Foucault'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levance for structural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history. By Foucault's Theory, regionalism is product of the instrumentality of space, power, knowledge and provide the basis for making the operation of power both spatial and tempor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opographical map of historical progress and to shed new light on the forming of identity in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on the poststructural-archaeological aspect.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it suggests Foucault's 'Theory of archaeology'. It mentions 'historical apriori' and archive, collateral space and general grammar as theoretical background of archaeological logic. Secondly, it clarifies 'statement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that is 'episteme' in which they emerge and exist within a field of discourse. And it discuss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concept as a social product on the situated character of interaction in time-space. Finally, it studies genetic variation proces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based on the social progress in Korean society. And it analyses practical actions of 'Statements' in terms of general grammar and textuality.

Keywords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푸코, 고고학, 언표, 텍스트성, 명사, 명제, 논증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Foucault, Archaeology, Statement, Textuality, Term, Proposition, Argumen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고고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살아오며 지구상에 남긴 온갖 대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연구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에피스테메(episteme)는 “한 시대의 인식지평, 형식적 체계들에 담론적 실천을 통합시킬 수 있는 관계들의 총체”를 가리키며, 한 문화에서 모든 담론을 출현케 하는 무의식의 심층적 하부구조로서 인식의 선행적 조건이다. 이것은 담론들이 이 틀의 구조와 질서에 의해 규정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선행적’이지만, 시대별로 각기 다른 배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푸코(M. Foucault)는 이것을 역사적 선행성(a priori)이라고 부른다.

공간은 집단의 인식체계로부터 비롯된 문화현상으로서, 그 표현된 형태는 인문적 조건, 또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 내재하는 정신적 가치의 표상-이미지·텍스트-이라는 점에서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인문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전통이란 무엇인가? 공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맞물려 빚어내는 언어체계인가? 공간의 개념의 차원과 물성의 차원에 대한 결합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이 인문학적 층위이다. 본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의 고고학적 관점을 도입한 학제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전통공간디자인의 정체성 형성문제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디자인 언표와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과정을 통찰하는 고고학적 지형도의 개념 구축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성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시공간적 존재이다. 본 연구는 전통공간디자인이 당대의 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G00020)

식체계라는 역사적 지층에 의해 그 형식과 조형성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언어·텍스트와 이미지 문화연구의 근저인 후기구조주의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전통공간디자인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푸코의 고고학적 방법론은 원거리적 시선의 외적 형식에 기초한 구조주의적 분석방법과 관찰자를 문화적 실체 안에 위치시키는 해석학적 논리를 결합한다.¹⁾ 연구의 시기적 범위로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한국 사회문화의 연속성 상에서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이 갖는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양상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코의 고고학 이론을 살펴본다. 방법론의 특성으로서 고고학적 논리, 기호와 언표, 역사적 선택성과 문서고, 그리고 언표의 방계적 공간과 변형의 문법 등 고고학적 본질에 관하여 논한다.

둘째, 고고학은 푸코가 역사적 구조주의²⁾라고 한 것으로, 푸코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공간론이다. 언표들을 계열화하는 규칙들의 집합이다. 기호들의 계열이 시공간적으로 현실화되게 하는 존재양태인 언표의 장들 속에서 고고학³⁾을 근거로 전통공간디자인의 개념을 특정한 역사적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논한다.

셋째, 푸코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공간·권력·지식의 도구성의 산물이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권력 모두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⁴⁾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의해 형성된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흐름을 푸코의 고고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역사적 추이를 통한 변천과정 및 문화적 장에서의 언표의 중층적 체계인 문서고⁵⁾를 살펴보고, 일반문법과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언표가 갖는 실

천양식을 분석한다.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은 발전해 왔는가? 단지 사회문화적 상황, 물리적 환경의 적응에 의해 변형되어온 것인가? 하나의 종(種)이 생물집단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의해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형질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변화의 누적된 결과를 진화라 한다.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관점에서 고고학적 접근은 공간에서의 한국성의 진화과정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언표와 담론이라는 시각에서 공간디자인에서의 한국성의 '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2. 푸코의 고고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고고학적 언표⁶⁾와 문서고

푸코가 생각하는 고고학적 방법이란 진술들 속에 나타난 규칙들을 상호연결시키는 법칙화의 작업이다.⁷⁾ 구조가 동질적 체계를 형성하는 반면, 언표는 다양한 층위들을 가로지르며 “가능적 단위들 및 구조들의 영역과 교차하면서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 내용들을 통해 드러나도록 만드는” 하나의 다수성이다.⁸⁾

고고학적 언표는 '반복'의 현상을 지니고 있다. 이때 반복이란 개념은 동일한 '의미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언표가 그 이전시대의 언표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관계그물을 형성한 역사적 지층의 단절에 따른 '구조적 반복'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고고학은 현시점에서 그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유사한 언표와 담론형식을 찾아 보자성(保磁性)에 추가시켜 구조적 반복을 증명하는 것이다.⁹⁾

하나의 문장이 다시 언급될 수 있듯이 하나의 명제 역시 다시 현실화될 수 있지만, 되풀이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는 것은 오직 언표뿐이다. 분화의 공간, 특이성의 분포 및 시공간적 위치 사이의 질서, 하나의 제도적 환경과 맺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언표의 반복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물질성을 구성한다.¹⁰⁾

언표는 사물들 자체가 아닌 그것으로부터 지시되거나 기술된 대상들에 대한 가능성의 법칙들, 존재의 규칙들로 구성된 하나의 좌표계에 연관된다. 언표의 좌표계는 언표 자체에 의해 작동되는 사물의 상태들이나 관계들의 장소, 조건, 분화의 장을 형성한다. 이 다양한 가능성의

1) '해석적 분석론'이라 불리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푸코는 구조주의적 대상과 해석학적 주체를 결합시켜 '비평'과 '실천'의 두 방식을 독창적으로 해결한다.

2) 구조주의는 학문적 보편성과 분석의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지평의 결여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푸코이론은 구조주의를 수용하는 동시에 실천적 역사적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구조주의'라 할 수 있다.

3) 푸코는 어떻게 과학적 객관성과 주관적 의도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 안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Hubert L. Dreyfus &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109

4) Edward W. Soja, Postmodern Geographies, London ; New York : Verso, 1994, p.150

5) 푸코는 '고문서(document)'와 '기념물(monument)'을 구분한다. 역사란 자료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한 시대적 집합요소를 특성화하고 관련성을 부여하는 작업으로서 고문서를 기념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고고학은 기념비적 담론들을 단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문서들로부터의 등질적이고 정합적인 문집(文集)의 구성, 그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대상들을 결정하는 선택원리의 수립, 분석기준들의 정의, 자료들에서 하나의 집합과 다른 집합들을 분류·범주화하는 관계들의 규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공간은 각 시대별로 건축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시대개념을 반영한 신축공간들-기념물들로 한정한다.

6) 고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언표'의 정의는 한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의 화자에 의해 발화된, 한 '언어(langue)'에 속하는 단어들의 모든 유한한 계열을 가리킨다.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arousse, 1973, p.191을 인용한 이정우, 미셸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0 재인용

7)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pp.413-414

8) 질 들뢰즈, 푸코, 허경 역, 동문선, 2003, p.32

9) 김형효, op. cit., pp.429-430참조

10) 질 들뢰즈, op. cit., p.27참조

<표 1> 언표와 비진술적 양식

3차성	가구	담론들	인식의 결과물
2차성	나무, 금속, 돌	언표(적 장) 담론의 질서 동일 담론구성체 담론의 원자 언표들의 집합	공간들의 계열체
1차성	물, 불, 공기, 흙	기호들의 집합	개개의 공간들

영역들에 관련하여, 언표는 명사적 언어계열소(nominal syntagma)로부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어구를, 또는 하나의 진리가를 받을 수 있는 명제의 출현과 제한의 가능성들을 정의한다.¹¹⁾

우리가 세계를 지각할 때 우리의 의식구조에는 이미 그 지각의 조건, 즉 시공간적 좌표가 내재해 있다.¹²⁾ 이렇게 현재의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논리적 장, 가능성의 장, 특이성들의 체계가 곧 '에피스테메'이다. 푸코의 철학은 문화의 지층마다 에피스테메가 가능하게 된 역사의 선형성 구조를 체계화 한다.

고고학은 대상체들로부터 각각의 지층과 문턱에 대응하는 언표, 각각의 지층에 고유한 명증성들·가시성들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¹³⁾ 진술의 주체가 '장소'나 '상황'개념과 구조적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은 푸코 철학의 구조주의적 핵심과 연결된다. 푸코는 '주체'란 공간적·시간적으로 측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위치나 위상 간의 '관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주체'는 장소개념인 '위치측정'과 상황개념인 '시간측정'이 날줄과 씨줄이 되어 엮어내는 '개연성'이다.¹⁴⁾

문서고(archive)는 독특한 사건들로서의 언표의 출현을 지배하는 체계, 즉 언표들의 형성과 변환의 일반적 체계이다.¹⁵⁾ 푸코는 문서고가 단절이 없는 직선상에 쌓여진 무정형한 누적이 아니라 변별적 모습에 따라, 다양한 관계에 따라, 종적규칙에 따라 유지되고 흐려지는 '담론의 체계'이며 '법칙'이라고 생각한다.¹⁶⁾ 따라서 문서고는 한 시대의 언표의 형성, 이 언표에서 저 언표로의 경로를 보여준다. 고고학적 연구방법으로서 문서고의 기능은 역사의 단층만큼 다양한 '실천양식'의 변형체계를 담론의 수준에서 찾는 것이다.

2.2. 언표의 방계적 공간과 변형의 문법

텍스트의 생산은 한 시대의 특정한 철학과 이념, 의도를 내포한 사건이다. 방계적(傍系的) 공간은 한 지층에서의 언표들 사이의 관계로서, 텍스트의 정체성을 시각적

으로 표출하는 '기호의 배치'이며, 시대를 지시하고 표현해내는 텍스트들의 공간이다.

언표적 장은 등질적(等質的)이 아닌 다질적(多質的)이며 복수적(複數的)인 공간이다.¹⁷⁾ 따라서 한 기호계열의 언표화는 한 언표의 대상과 주체가 속해 있는 고고학적 장에 의해 규정되며, 그러한 기호계열이 언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방계공간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하나의 기호계열이 언표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그것이 어떤 물질적 실존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언표의 물질성이란 언표의 외재적 조건이 아닌 언표 자체의 내재적 규정성으로서 물리적 의미에서가 아닌 일종의 전략으로서의 제도적 차원을 뜻한다.¹⁸⁾ 즉 분화되고 반복되는 무한한 언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말한다.

(1) 일반문법

고고학은 문화적 잠재성과 역사적 실증성의 차원에서 기호들의 규칙들과 체계들을 읽어내며, 언표의 적용과 재생산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적 실천들의 언어학적 체계를 밝혀준다.

문법은 문장들의 형성규칙을 규정한다. 일반문법은 담론의 표상기능이 표상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따진다. 푸코에 의하면 일반문법은 언어활동을 다른 것과 결연되는 표상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다.¹⁹⁾ 이들은 재생과 변형에 대한 생성문법으로서 기호들의 집합이 언표가 되기 위한 '연속적 계기'와 '변형의 규칙' 모두를 포괄한다.

'분절(articulation)'은 넓은 의미의 원자론적 사유²⁰⁾로서, 명사, 형용사, 개념, 사물을 쪼갬다. 표상을 인식케 하는 가시성의 기초 담론형식으로, 대상을 명증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대상을 쪼개는 것이다. 표상은 분절에 의해서 쪼개진 것을 하나의 통일된 기호로 결합함으로써 대상과 구조를 담론의 질서에 적용시킨다.

'지시(designation)'는 분절과 귀속의 부착점이다. 명제(proposition)의 수준으로, 명제는 실존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지칭한다. 이것의 표상작용은 자기 아닌 다른 것(대상)을 지시하고, 또 동시에 다른 것에 비추어 자기 것을 현시한다.²¹⁾ 지시이론은 명사가 실체에서 질로 분화되는 과정으로, 넓은 의미의 명사들과 논리적 연결사들

11)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1992, pp.134-135참조

12)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p.236

13) 질 들뢰즈, op. cit., p.87참조

14) 김형효, op. cit., p.417참조, 디자이너의 전통의 진술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적 관계와 현재 상황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계기(契機)'이다. 장소나 상황이 다르면 진술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주체란 기본함수에서 파생된 언표의 한 기능이다.

15) 도미니크 르루르,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 박기순 역, 새길, 1996, p.275 참조

16) 김형효, op. cit., pp.438-439

17)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4, p.59참조

18) 푸코, op. cit., pp.147-150참조

19) 일반문법은 귀속, 분절, 지시, 파생의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김형효, op. cit., pp.456-457참조, 본 연구에서는 푸코의 「말과 사물」에서 연구된 고전시대 일반문법을 특성화하는 문법의 이론적 도식들의 예를 그 용어의 특성 수준에서 본 연구의 관점으로 다시 취하고자 한다.

20) 음소(phoneme)들은 언어의 기본함체로서 형태소(morpheme)를 이루는 규칙에 따라 조합되며 이러한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단위들이다. 형태소들은 문장에서 낱말들로 홀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소들과 조합되어 말을 형성하기도 한다.

21) 김형효, op. cit., p.452참조

<표 2> 텍스트들의 방계적 공간

결합체	계열체		
	모더니즘	탈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양식	분절	지시	귀속
일반문법	유사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내텍스트성

을 결합하여 이론을 구성한다.

‘귀속(attribution)’은 표상하는 존재와 표상되는 존재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기호들로 하여금 규정된 문맥에서 특이화된 표상적 내용을 함축하게 해주는 하나의 연합된 인식의 형성이다. 상이한 도식들이 규칙성에 따라 복수적인 관계가 존속되도록 하는 가능한 어구들의 구성체계이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구성의 내적 질서인 집합성의 체계로서 논증(argument)의 수준이다.

(2) 텍스트성

고고학은 텍스트들을 다룬다. 텍스트와 텍스트가 맺는 관계 또는 텍스트(또는 텍스트와 비텍스트)들이 서로 관계 맺음으로써 형성하는 관계들의 그물을 기술하는 것이다.²²⁾

텍스트성²³⁾이란 문화적으로 다르게 위치한 텍스트가 합쳐져서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진 텍스트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영역에서의 담론의 질서를 드러나게 해준다.²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²⁵⁾은 어떤 의도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티프로 잠재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어휘들은 상이한 어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모든 의미의 복층에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언어의 무의식적 본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된다. 상호텍스트성의 대표적 형식으로는 인용(citation)과 암시(allusion)가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문맥에 기존의 텍스트가 삽입됨에도 불구하고 본질의 텍스트가 변형을 겪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내텍스트성(intratextuality)’이란 외부 텍스트의 영향이 심층적으로 작용하여 본래의 문맥에 흡수되어 변형이 가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평적 거리를 가진 반복²⁶⁾” 또는 차이를 가진 반복의 개념에 가깝다. 내텍스트성에서 독자는 전(前)의식(또는 선형성) 속에 담고 있는 텍스트의 원형과 상징체계가 활발하게 해독에 관여하게 된다.

반면 ‘유사텍스트성(paratextuality)’이란 텍스트와 오프텍스트(off-text) 사이의 경계적 영역으로 내포보다는 외시

적 형식의 유사성, 심층적 내용보다는 표층의 형식적 원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유사텍스트는 작품의 중심 바깥부분에서 무엇을 언급하거나 의미를 수정하기도 한다.

3.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접근

3.1. 언표로서 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구조

구조언어학의 방법론은 문화 상부구조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통시적인 절대불변의 구조를 다루는 반면, 푸코의 언표는 역사 속의 무의식 측면을 에피스테메에 의해 역사적 단면을 구획한다.

전통의 현대적 도입을 외형의 직설적 모방이라는 초기의 상상에서 공간성의 재해석에 따른 정신적 개념의 추구로 단순히 그 변화의 경향성을 정의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그것을 ‘발전’이 아닌 한 지층에서의 고유한 에피스테메에 의한 언표들 사이의 관계라는 ‘진화’²⁷⁾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고고학은 문화적 실체들의 긴 연속성의 심층에 ‘불연속성’과 ‘의미의 이월’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한다. 고고학은 한 의미의 연속적 발전인 것처럼 보이는 바의 것이 비연속적 담론 형성들에 의해서 교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⁸⁾

전통공간디자인은 특정한 역사적 담론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 레퍼토리에 대한 수사적 조직으로, 사회적 대화의 맥락에서 행위, 기억, 태도가 고려된 사회적 표상들의 조절체계이며, 특별한 지각을 구성하는 담론실천의 발화, 회귀적 서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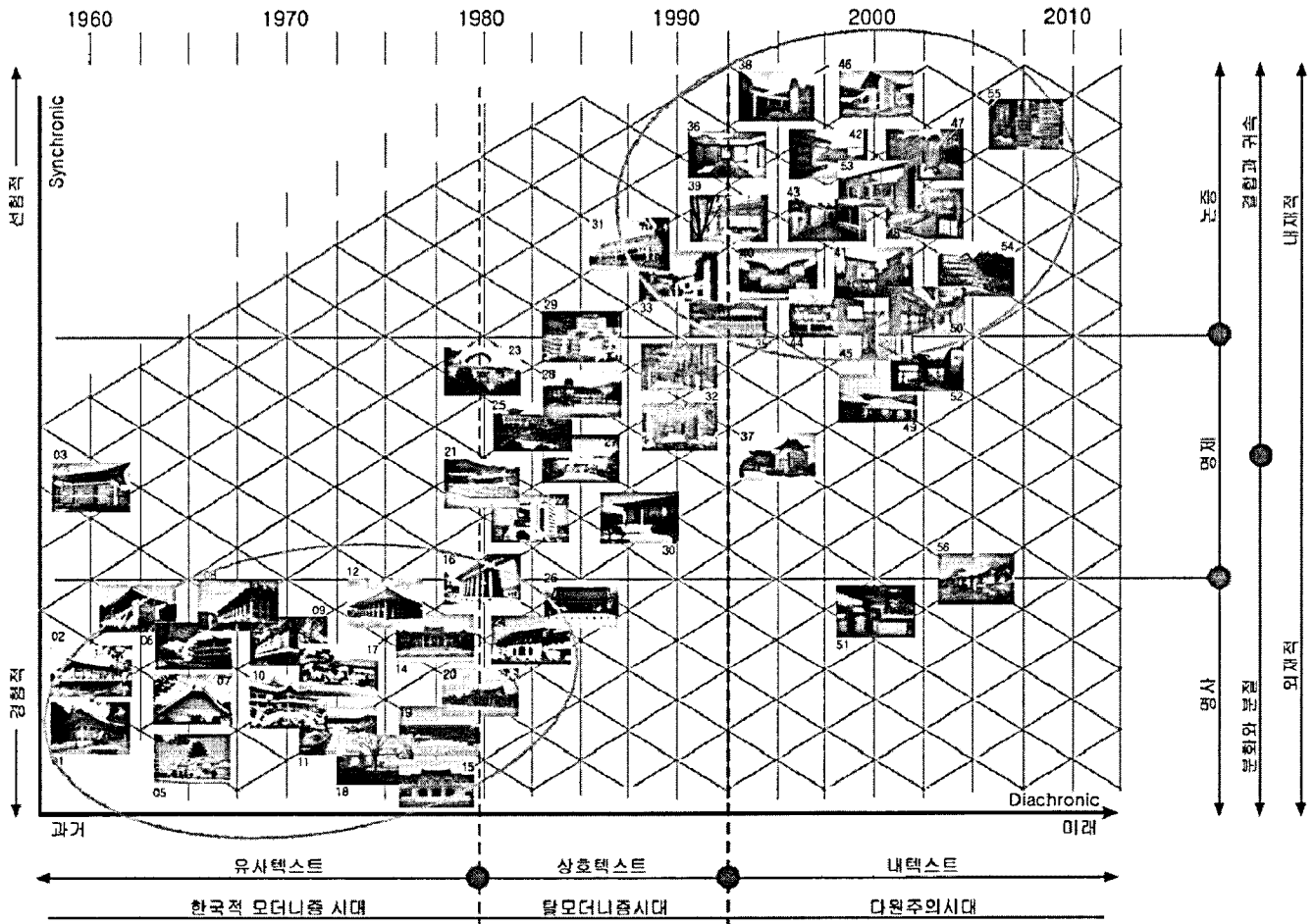
고고학은 여러 언표군들이 조합되게 하는 다양한 수사학적 방식을 기술한다.²⁹⁾ 여기에서는 일반문법에서의 분절, 지시, 귀속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담론분석의 층위를 단어, 문법, 문장구조의 범주에 의해 텍스트를 구조화한다. 형태어휘-형태소 분석의 차원인 분절, 구와 절 분석차원인 지시, 문장 분석차원인 귀속의 세 가지 단계로 전통공간디자인 발화방식을 분류한다. 이를 공간적 차원으로 환원하면 공간단위요소 분석의 차원인 분절, 주제와 모티프 분석차원인 지시, 공간의 정서 및 미의식 차원인 귀속의 세 가지 형식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분절이론은 원형의 활용으로서, 낱말의 공간적 모습의 변이이다. 원형에 상호연관되는 요소들의 체계, 원형 속에 존속하는, 시간의 두께 속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양식의 재활성화이다.

22)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4, p.19참조
 23) 주네트(Gerard Genette)는 구조주의 문학이론으로 담화의 여러 가능태들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여 텍스트성의 다섯 형식을 밝혔다.
 24) 크리스 바커,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백선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108참조
 25) 상호텍스트성은 포스트모던 철학의 주요 개념의 하나로서 철학과 건축 및 다른 예술, 학문 분야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다.
 26) 허치언(L. Hutcheon)의 이론에 의한 것으로, 모든 기호화된 형식은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의 견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27) 진화는 보통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퇴화 역시 ‘환경적응’의 진화의 일면이며, 진화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28) Hubert L. Dreyfus & Paul Rabinow, op.cit., pp.105-106참조
 29)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4, p.60참조



<그림 1>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개념구조

지시이론은 의미가 곧 대상이 되는 형식으로서 지시이론에 의한 디자인은 물리적 구성에 주제적 지시체를 삽입시킨 표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제는 메시지를 수반하는데, 이를 인지함으로써 특수한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는 특정의 정보를 지시함으로써 담론에 이중코드를 구성한다.

귀속이론은 어휘적 결속(lexical cohesion)으로, 텍스트가 공식적인 언어학적 단위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지식, 상호작용, 대화 등의 결과물로서 담화규칙의 '측정'이 아닌 '느낌'의 문화적 특수성에 관한 것이다. 즉 사유, 행위 혹은 경험을 통해 인식된 미적가치 또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기호를 통한 유의미한 효과인 '정서해석소(emotional interpretant)'에 관계한다.³⁰⁾

그리고 '에피스테메'에 의한 '불연속성'에 '선형성(아프리오리)'의 '의미의 이월'을 가능케 하는 담론의 가능태(dynamis)는 텍스트성-유사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내텍

30) 예술작품에 표현되는 관념들이 단순한 감정의 흐름으로 환원되지 않고 일종의 사유가 될 때 해석소(interpretant)는 논리적이 된다. 이는 곧 관념들의 효과가 마음의 이지적 내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C. 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1-6,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1935, Vol.2, p.251, 253을 인용한 Y.바진, 현대 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 역, 예전사, 1996, pp.287-288참조

스트성-에 의해 단층화(斷層化)한다.

60-70년대는 형식주의, 규격화, 시스템과 조립산업의 양적 논리가 지배한 시기로서 한국적 모더니즘 시기라 할 수 있다. 전통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연결시킨 후 이렇게 형성된 국민정서는 정권의 정통성 확보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전략³¹⁾으로 활용되었다.

80년대는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고양되고 전통의 현대화가 대중화된 중요한 계기가 된 시기이다. 세계와의 국제적 교류가 본격화된 시기로서³²⁾ 이론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시기와 일치한다. 독해는 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완성되는 상호텍스트성을 함의한다. 이 시기는 기념성 건축물의 표현에 있어 양적 팽창과 질적 다원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90년대 이후는 정치적 논리는 지나가고 경제적 여유와 풍요로움으로 소비문화를 재조정하고 생활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문화의 다원주의의 시대로, 탈장르실험과 파행적이고 분열적인 텍스트 작업을 통해 디자인 언어는 다중 층위(layer)를 구성한다. 40년만의 단절³³⁾의 시대와

3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현대예술사대계Ⅲ, 시공사, 2005, p.431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현대예술사대계Ⅴ, 시공사, 2005, pp.29-31

33) 한국 근현대사는 40년 단위로 큰 변화를 겪어 온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처음은 왕정이 끝나고 식민지화된 직후, 두 번째는 분단이

<표 3>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변전성과 함의성

연대	표상	대상의 변전성과 함의성
1960년대	01 안중근기념관, 1961	전통조형언어와 현대적 기능을 수용, 현대건축재료로 빈약한 전통목구조 건축양식의 모사와 재현에 의한 민족문화의식의 고양
	02 워커힌한국민속관, 엄덕문, 1962	'루(樓)' 형식의 고전건축원형의 양식적 정형화와 디테일의 재현
	03 프랑스대사관, 김종업, 1962	대지와 관계하는 두 건물 사이의 동조성과 지붕의 조형성 및 시지각적인 장면구성을 통한 건물배치로서 한국적 서정성 함유
	04 에밀레미술관, 조자용, 1964	신과 요소 변형의 구체화된 한국적 형식주의
	05 국립민속박물관, 강봉진, 1966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등 전통사찰의 양식요소의 직설적이고 변형된 스케일의 혼합적 모사
	06 서울여상, 조승원, 1966	익공형식과 겹처마의 콘크리트 구조의 한옥형식
	07 부여박물관, 김수근, 1967	전통양식요소의 혼성적 모사와 왜색적 이미지 형성으로 한국성의 오브제적 해석
	08 민족문화센터, 이희태, 1967	얼주, 누마루, 한국적 지붕곡선을 원형으로 양식화된 전통성으로 한국적 감각의 표현을 시도
	09 공주박물관, 이희태, 1971	무령왕릉의 발굴품을 소장하기 위한 박물관이라는 기능과 연결된 이미지로, 무령왕릉 볼트구조의 도상화된 표층장식 사용
	10 능동 어린이회관, 1973	콘크리트구조의 전통한옥의 현대적 모사와 단청장식
1970년대	11 경주화랑교육원, 김인호, 1973	서원과 사찰의 형식을 건축적 기능에 삽입, 콘크리트로 전통의 디테일화
	12 경주미술관, 이희태, 1975	지붕, 몸체, 기단 삼부형식을 원형으로 근대적 구법으로 변안
	13 공간사옥, 김수근, 1977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높이를 한국건축의 내재질서인 집합성의 관계구조로 수직화한 동적 적층공간구성
	14 국립광주박물관, 박춘명, 1978	콘크리트구조에 의한 전형적 궁궐과 사찰의 양식적 디테일의 2층진각으로 토착적 지역주의의 표현
	15 호암미술관, 장기인, 1978	표질적 모사와 현대적 재료의 절충적 기법으로 건축 내용과 질료의 전도
	16 세종문화회관, 엄덕문, 1978	지붕, 몸체, 기단을 원형으로 하는 삼부형식을 원형으로 한 정면의 형적 처리와 장식화로서 기념비성 강조
	17 정신문화연구원, 김희춘, 1978	전통건축의 이미지 부여와 전통건축요소의 현대적 변안
	18 세종대 박물관, 김홍득, 1978	4층 백제탑 양식의 직설적 모사와 현대적 재료 변안
	19 부산시립박물관, 엄덕문, 1978	한옥을 원전으로 한 지붕, 기둥, 기단의 단순화 및 변용
	20 전주역사, 신무성, 1979	팔작지붕의 솟을삼문형식을 지닌 대칭적 형태로 전통원형의 의역
1980년대	21 국립청주박물관, 김수근, 1980	자연과 합일하는 방식, 공간을 배치하고 집합하는 방식에서 전통의 심성을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낸 전통의 새로운 해법 제시
	22 전주시청사, 김기웅, 1981	전통건축의 구성요소와 장식요소의 변형된 비례와 과장된 수법의 조합으로 정면성 강조
	23 온양민속박물관, 이타미준, 1982	흙벽돌의 원초적 정서와 목질과 기와의 질료조합 및 민가의 은유로서 흙의 원초적 정서를 표질화
	24 윤봉길기념관, 김기웅, 1982	지붕, 몸체, 기단의 삼부형식의 변형과 맞배지붕의 중첩적 정형성
	25 제주민속자연박물관, 김홍식, 1983	제주도 현무암의 토착적 재료 사용 및 구름을 이용한 오르내림의 시각적 전개를 제주도 민가 형식의 모방에서 유추, 형상화
	26 독립기념관, 김기웅, 1986	수덕사 대웅전의 맞배지붕을 변형한 역사적 수사로서 국민적 염원을 건축적으로 형상화한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재귀
	27 국립현대미술관, 김기웅, 1986	고유산성, 정자, 봉화대 등 수원성의 이미지 재현, 화강암을 사용한 함도적 재질감
	28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김석철, 1986	갯의 도상적 형태로 울덴버그식 팝아트(Pop Art)적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차용으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이중 기호화
	29 국립국악당, 김련, 1987	심각에서 유추된 양감 및 겹처마와 귀퉁이를 지붕의 시형식으로 중요제례악 연주시의 중요앞마당을 상징한 배치형식
	30 광주향토문화회관, 한중연, 1987	전통지붕과 처마 곡선미의 간결화 및 비대칭 민가형식의 직설적 복고주의와 커튼월 차용
1990년대	31 국립국악고등학교, 민희식, 1988	'비어있는 마당'을 절대미감의 '고유한 질'로 인식하여, 매순간 상황을 자율적으로 창출하는 공간조직으로 질적 추상화
	32 인터콘티넨탈호텔, 1989	경복궁의 내조와 연조의 건축적 컨텍스트를 공간디자인 텍스트에 인용하여 서울 궁궐의 현시적, 지시적 유비성의 내부 공간화
	33 달마회관, 김기웅, 1990	불교교리의 은유적 수사 및 배치의 중층적 구성에 의한 시각적 심도부여에 의한 전통의 기하학적 추상화
	34 제주관광센터, 김기웅, 1992	제주민가의 형태유추와 제주화산석 사용에 의한 풍토성 표현
	35 국립부여박물관, 한규봉, 1993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매스의 수평확산배치와 선계의 전통기법을 도입하여 박물관과 주변공원을 상징적으로 분절
	36 환기미술관, 유구승, 1994	대지의 해석, 공간적 연속성에서 한국적 서정성 반영, 화강석 돌나누기와 'ㄷ'자형 중정의 단순화에서 한국적 조형어휘 차용
	37 장석교회, 최영집, 1995	교회건축의 한국적 토착화로서 수원성의 건축적 조화와 기능적 해결을 전체구성에 개념화하는 전통어휘 차용
	38 경주도립박물관, 장세양, 1996	전통성곽의 조형적, 재료적 특징을 전속한 연상작용의 이미지로 상징화하여 창작소재로서의 전통을 재편집하고 재구성
	39 수졸당, 승효상, 1993	사교의 중심이며 공동체의 공간인 마당을 중심으로 틈의 공간화, 여백에 대한 감수성, 무위자연적 관념의 공간텍스트
	40 몽학재, 우경국, 1994	한옥구조의 칸의 개념 적용 및 채의 개념에 의한 옥의마루 마당의 공간구조와 현대적 재료의 노출에 의한 기계적 혼성적 조합
2000년대	41 몽죽헌, 김병윤, 1997	흙과 바람이 담겨진 현상을 터의 개념에 그 근원적 변화를 집결하여 내외부공간의 유기적 어우러짐을 개념화
	42 수백당, 승효상, 1998	'비움을 지키는 집'의 의미처럼 비움이라는 공간조직의 변위로서 상황에 적응하는 전통공간의 내포의미를 은유적으로 지시
	43 평심정, 우경국, 1999	마당을 경계로 사람채와 안채로 이루어진 한옥의 암시구조로서, 시공간 속의 동적 계도에 의존하는 시적 감수성의 체계
	44 미재루, 방철린, 1999	안과 바깥의 건축구조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관통하여 전통적 외부공간의 속성이 프레임화되어 자연이 공간 속에 투입되는 구조
	45 가가불이, 이일훈, 1999	평면 중앙의 비워진 공간과 양쪽의 채워진 내부형태를 결합한 도시형 채나눔 형식으로 전통공간의 집합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
	46 발안전주교회, 김영섭, 2000	큰마당과 작은마당, 큰 '루(樓)', 상호관입 등 전통건축구법의 개념적 구현과 전통사기체기의 형태적 도상화에 의한 기억의 환유
	47 필당, 정영화, 2000	마당의 공간감각을 시적 프로그램에 중첩, 사랑과 안채의 상호관계정립을 하나의 장 속으로 끌어들이는 암시적 표현구도
	48 임거당, 김효만, 2000	'루'하부의 트임에 의한 도시와 건축의 관통과 관입의 순환으로 전통공간의 중첩된 회화적 연속성을 부여
	49 포도호텔, 이다미 준, 2001	제주민가의 맥락적 배치와 형태, 제주적 감성의 재료로서 대지와 공존하는 인간-지역 간의 조화로운 맥락적 결합을 은유
	50 정토사, 김개천, 2001	절대유와 절대무가 공존하고 건축과 인간과 자연이 일함(一合)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무극의 공간 구현
2000년대	51 무진주, 이규석, 2002	자연의 조합을 전혀 다른 질감의 이어짐과 끊어짐으로 전통을 재현
	52 다담선, 참공간, 2002	한옥의 개조로서 한옥고유의 전통적 형태와 현대적 언어의 대비
	53 한호재, 민규암, 2003	자연을 최대한 접하는 전통한옥의 수평적 위계적 배치를 구현한 공간체계로서 전통의 선험적 의미를 부여
	54 DEBW디자인센터, 김석철, 2004	현대성과 전통한옥을 기능과 휴식, 현재와 과거라는 대립개념에 연결
	55 창동실령탕, 강신재, 2004	배출립기둥과 오방색을 추상화한 간결화된 회화적 표상으로 전통성 추출
	56 라군, 구가도시건축, 2007	안압지의 유추와 전통한옥기본단위의 직설적 변안으로 역사적 도시의 맥락성과 공간조직의 전통을 지역문화와 연결

새로움, 국제화와 세계화시대, 문화시대의 대두에 의한 대중의 시대로서 수용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공공공간으로부터 주거 및 상업공간으로 전통문화를 당대 일상의 삶의 문맥으로 되살려 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예술적 성

과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3.2. 한국 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분석

전통적으로 발화된 것들에 대한 역사적 기술은 전적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대립에 의해 되어 왔으며, 언

고착화된 직후,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재체제와 냉전이 무너진 직후로 역사적 단절현상을 인식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현대 예술사대계VI, 시공사, 2005, p.29참조

부터 내재성의 본질적 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³⁴⁾

여기에서는 각 지층의 개별적 전통공간디자인들의 대상³⁹⁾의 변전성과 함의성을 <표 3>을 통해 살펴보고, 언표-공간기호들의 집합-들이 각각의 지층에서 어떠한 규

정성을 띠는가를 다음 세 가지의 논점에서 <표 4>에 의해 분석한다.

(1) 진화요인과 경로로서 전후지층과 맺는 관계는 무엇인가, 즉 그 이전시대의 언표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언표군의 계통발생에 의해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관계그물

<표 4>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표상의 고고학적 언표 분석

	(1) 진화요인과 경로	(2) 진화 메커니즘	(3) 명증성과 가시성
제1 지층 (1960 - 1970년대)	이 시기의 전통의 향방은 근대성과 지역성을 결부한 수용적 지역주의로서, 전통에술개념은 민족문화정신 고양 및 고유성과 자주성회복이라는 사회의 집합적 욕망으로서 공공건축을 지배하는 의식으로 도구화된다. 지배이념으로서의 전통의 구조는 문화재 보호정책과 정권의 정통성 확보의 정치적 이해에 관련된 관료문화와 결합되어 토착적 지역주의, 정치적 선전, 국수주의에 의한 새로운 선언과 명분의 계몽적 성격으로 확립된다.	전통의 구조는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리를 공유하는 미시적 소동으로,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이며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취한다. 전통이 차입되어 재구성되는 어휘와 억양으로 외관상의 형태적 목적에 의해 프로그램의 부재와 형식적 경향으로 구도화된다. 구상화된 기호로서 양식적 전용(轉用)을 결합함으로써 표상과 대상체 사이의 가설적 유사성에 기반을 둔 표기의 양상이며, 인지의 효율성을 반영한 '유사텍스트성'에 의한 직접적 의시로 나타난다.	피질에서 물성을 구하는 방식으로, 지붕, 기둥, 기단 등 전통의 구조적 요소 및 디테일에 대한 집착과 건축요소의 기교적 변용 등, 전통건축의 원전에서 추출된 주요요소의 단순화나 역사적 수사로서, 그렇게 본질된 전통건축공간의 지배적 구성요소들은 같은 방식으로 또 다시 조합되고 삽입되는 명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요소와 모더니즘 어휘가 존재하는 역사적 매너리즘, 전통 형태와 재료의 질성 등 고전어휘의 '본질'적 차용에 의한 원형어휘의 물적 복원으로 전통의식의 표질성에 의해 표상은 술어기호(명사, Term) ³⁵⁾ 로 작동한다.
제2 지층 (1980년대)	건설문화에서 다원문화의 전이적이고 중점적인 시대로, 한국성은 다개체·다가치의 모색과 경향으로 나타난다. 기념성의 공공공간의 양적 팽창과 실험성에 의한 질적 다원화 등 문화시설과 지방의 지역적 형식성에서 이전의 엘리트건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역적 가치는 대중성, 민중성, 토속성의 결합으로 다초점화된다. 제1지층의 디테일과 기법의 탐색으로부터 전통철학과 인간관의 창조적 역량으로, 물상에서 관념으로 진보적 일탈이 이루어진다.	이 시대의 전통공간디자인은 이성과 정신, 문화유희주의, 역사진보주의적 진리담론으로서의 공간개념예술을 대변한다. 지역과 역사의 참고로부터 도시의 문맥에 대한 이해 및 주변성과의 상관과 포섭으로써 실험과 추험을 결합한다. 언표 내적 지시의 규칙들을 인유에 적합하게 개작함으로써 텍스트의 병합과 상호텍스트성은 표상을 이중 기호화한다. 전통은 대상의 유추적 인용과 암시로서의 의미 층에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그 의미를 이월한다.  16. 세종문화회관 지붕, 몸체, 기단을 원형으로 하는 삼부형식의 근대적 구축방식으로 기둥과 지붕의 기념성, 장식적 정면의 고식화된 형식주의로서, 모더니즘의 구조요소와 전통부분요소의 장식화가 대립구도를 이룬다. 기단의 높이는 권위를 표현하며, 열주형식은 반복과 깊이감에 의해 강조된다. 서까래와 추녀의 양식화, 배흘림, 전통문양의 사용 등 전통건축의 지배적 요소인 지붕과 일면에서 추출된 요소들은 본질되고 다시 조합되어 '유사텍스트'로 삽입됨으로써 명사적 역할을 한다.	인과적 관계의 상호조음, 지각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재생산된 담론형식으로 현시적, 지시적 의미를 함유한다. 따라서 텍스트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사이를 융합하여 기호화되는 표상으로부터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독자적 추론적 능력이 고려된다. 전통은 구조와 수사에 의한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으로 해석, 문맥과의 직접적인 관련근거를 그 자체 속에 갖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서술기호(명제, Proposition)로서 언표화된다.  28. 예술의전당 각의 도상적 형태로서 올덴버그(C. Oldenberg)식 팝아트적 포스트모더니즘기법 차용으로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이중 기호화된다. 두 목소리의 상호조음에 의해 재현된 담론형식으로 대중성, 민중성, 토속성에 소비문화의 재미가 결합되어 텍스트상의 병합을 이룬다. 스케일의 변형과 왜곡, 모티프 적용에 의한 이원적 혼성체의 극적 효과로서, 이러한 "A 는 B"라는 비유방식은 사물을 지시하는 서술기호로 적용된다.  32. 인터컨티넨탈호텔 검독공의 내조와 연조의 공간적 컨텍스트를 공간디자인 텍스트에 인용, 궁궐의 구조적 공간 속에서 내재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위치들을 호텔이라는 구조 속으로 삽입 ³⁶⁾ , 원본을 지시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특수한 주제구조는 궁궐과 호텔에 유비적인 공간 구조관계를 상용시켜 이중코드를 형성함으로써 공간언어의 상관자인 궁궐과 그 인의 삶을 호텔공간에 상징적 세계로 생성하는 서술기호로서 그 메시지를 구체화한다.
제3 지층 (1990 - 2000년대)	90년대는 60년대 이래의 정치경제적 성숙과 예술 문화에 집결되어 나타나는 시기로서, 경제적 여유와 풍요로운 정신적 인식치로서의 주거공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한국적 뿌리정서와 문화적 보편성의 지향으로 이끈다.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주거의식을 반영하는 문화적 전통과 주도하여 고전으로부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를 어휘로 선택, 제(齊), 당(堂), 루(樓), 현(軒)과 같은 전통주거의 명칭이 사용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통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관념은 주거공간에서 상업공간으로 확대되어 일상적 주변공간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전통논의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한다.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시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즉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서 개인의 일상영역으로 대중의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며, 전통은 공간의 대중과의 소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다원주의의 요구나 욕망, 또는 기억이나 상상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다질적 조형구도로써 재편집되고 재구성된다. 실재하는 물질중심의 사유로부터 이미지와 기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통은 기억의 편린, 함축적 스토리구성 등 상징소거로서 차용되며, 관념의 차원과 미학적 본질성에서 감성의 근원을 집결하여 유기적 어우러짐을 개념화함으로써 전통의 관념은 '내텍스트성'으로 함축된다.  53. 한호제 한호제는 본체와 별체로 구성된 전원주택으로, 전통주거의 관조적이고 위계적이며 가치론적 측면과 실용적인 현실적 측면의 내적의존성을 드러낸다. 전체 대지에 걸쳐진 평면구조는 두 개의 지붕이 하나로 묶여짐으로써 현대건축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논증기호는 표상언어가 개념언어화되어 얇은 세계로 들어오는 '내텍스트'로서 사면언어와 연결되어 논리를 낳는다. 자연을 최대한 접하는 전통한옥의 수평배치를 구현한 공간체계는 총체적인 내적 통일성에 의해 전통의 실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간과 기억 및 공간자체에 대한 관념을 확장시킨다.	90년대 이후 전통공간이란 총체적 완결단위로서의 물리적 형태가 아닌 원형적 감성어휘로 파악된다. ³⁷⁾ 한국적 공간정성을 물적대상 이상의 대중적 감수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인식의 차원 중 실험성의 정보를 이입하는 것으로 표상화된다. 전통의 정신적인 내용을 직관적인 유추작용에 의하여 표상에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결부시키는 상징조작, 플롯 또는 내러티브로서 공간스토리의 구성 등 일상체현의 대상으로서의 전통은 문화적 지식에 대응하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미적 가치를 소유하는 기호활동- 정서해석소를 실어나르는 기호의 '귀속'능력-에 의해 '논증기호(Argument)' ³⁸⁾ 로서 언표화된다.

34) 푸코, op. cit., p.175참조

35) 피어스(C. Pierce)의 기호분류법은 기호들이 해석되는 방식에 따라 명사(술어기호, term), 명제(서술기호, proposition), 논증(논증기호, argument)의 세 가지로 나뉜다. Y.박진, op. cit., p.280

36) 박경애,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텍스트의 지시작용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 8, p.37참조

37)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1998, p.240참조

38) 미학과 논리학 사이에 일종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 있다는 견해는 피어스로 하여금 예술작품을 단순히 술어(term)나 문장이 아닌 보다 발전된 논리적 체계로 간주하게 했다. 피어스는 시(또는 소설)나 회화를 일종의 '논증(sound argument)'으로 파악

한다. 인상과 그림의 초벌색채들은 의도된 표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체적 성질들로서 서로 협력한다. 피어스는 건축에서도 같은 논리적 기반을 찾는다. 이 논리는 서로 다른 문화환경이나 서로 다른 시대의 텍스트들 간의 문화적 구조를 대표한 2차적 모델체계 분석에 유용하다. Y.박진, op. cit., pp.271-272참조

39) 기호는 자신에 의해 생성되거나 한정되어지는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이다. 기호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대상 또는 대상체(object)이며, 그 대체물이 표상(representamen)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며, 표상은 개개의 현대 '전통공간디자인'으로 규정하여 언어학적 문법과 텍스트성에 연계시킨다.

을 형성하는가,

(2) 진화 메커니즘으로서 한 지층의 주체집단은 어떤 언표행위적 공간 속에서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 언표행위적 공간을 변화시켰는가,

(3) 대상으로부터 표상은 각 지층에 어떠한 명증성과 가시성을 추출하는가, 즉 '전통공간디자인'이라는 담론의 역사가 형성하는 공간 속에서 어떤 언표유형으로 위상학적 위치를 점하는가의 관점에서 논한다.

4. 결론

고고학은 한 담론의 형성과 변전의 조건들을 기술하여 역사의 선형적 모델을 불연속적 계열들의 모델로 치환함으로써 복수화된 역사적 사건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푸코철학의 담론체계에서는 주체의 실존은 사라지고 언어체계인 언표만이 존재한다. 문화적 장으로서 전통공간디자인의 영역을 개별적 주체가 아닌 하나의 익명성의 장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언표에 의해 정의하는 고고학적 관점을 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디자인의 진화요인과 경로를 따지는 일은 기호들의 집합의 유연(類緣)관계를 추정하는 일이다. '에피스테메'에 의한 전통공간디자인의 성층화는 한국의 모더니즘, 탈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시대적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함으로써 방계적 공간을 형성하며, 개별적인 작품을 관통하는 언표적 실천들의 규칙들과 유형을 정의한다. 즉 시대의 배치가 지층변환의 관계를 수립하는 토대로 작용하여 한국성 논의와 연속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전통은 그것의 잠재성과 에피스테메에 의해 질적 복수성을 지닌다. 텍스트성은 선형적 공간을 개방하여 선형적 요소들의 지적관련성에 의해 근원텍스트의 심미적이고 사회적인 지식체계를 공유하고 문화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한국 전통공간디자인 언표의 시공간적 진화 메커니즘은 유사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내텍스트성으로 변화하면서 텍스트로서의 전통을 새로운 현실로 구축한다.

셋째, 전통이라는 역사적 선형과 전통공간디자인이란 문서고의 매트릭스 안에서 지층의 명증성과 가시성의 특성은 형태소 분석의 차원인 분절, 구와 절 분석차원인 지시, 문장 분석차원인 귀속의 3가지 단계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 경향이 파악된다. 명시성에 기반을 둔 표기의 한 양상인 슬어기호로부터 문맥과 대상에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서술기호로, 그리고 정신적인 내용을 관념적인 유추작용에 의하여 결부시키는 조형구도인 논증기호로 그 언표는 변이 또는 진화한다.

푸코의 언표는 지각되는 사물 내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시공간적 위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을 역사적 불변항이나 본질에서 한 단계 진화시

켜 전통코드들을 숨쉬는 현재로 융화시키는 것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문화적 자의성이다.

"모든 개념은 변전된 것"이라는 니체의 말⁴⁰⁾에서 보듯이 역사주의에 있어서는 불변적 진리보다 풍요로움과 변전의 다채로움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전통공간의 현대적 수용은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유형이나 규범이 아닌 '반복'의 지속과 변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통공간디자인의 흐름은 단순한 '연대기적 시대(epoch)'의 변환이 아니라 '인식론적 차원의 시대(era)' 전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것, 초역사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⁴¹⁾ 것으로 나누어 반드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효, 구조주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2.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2006
3. 신영훈·이상해·김도경,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1
4.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5. 이정우, 개념 뿌리들, 철학아카데미, 2004
6.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4
7. 임석재, 한국현대건축비평, 예경, 1998
8.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현대 예술사대계 I-V, 시공사, 2005
9.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건축 100년, 피아, 1999
10. 도미니크 르쿠르, 프랑스 인식론의 계보, 박기순 역, 새길, 1996
11.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1987
12.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2000
13.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 역, 현실문화연구, 1999
14. 질 들뢰즈, 푸코, 허경 역, 동문선, 2003
15. 폴 벤느, 푸코:사유와 인간, 이상길 역, 웅진씽크빅, 2009
16. 크리스 바커,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백선기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7. Y.바진, 현대 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 공역, 예전사, 1996
18. Edward W. Soja,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 New York : Verso, 1994
19. Foucault M.,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 from the French by A. M. Sheridan Smith, London : Tavistock, 1972
20. Hubert L.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21. 이정우, 미셸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2. 박경애, 한국적 공간디자인의 의미론적 분석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5호, 2006. 5

[논문접수 : 2010. 01. 31]

[1차 심사 : 2010. 01. 20]

[2차 심사 : 2010. 02. 17]

[게재확정 : 2010. 03. 05]

40) 폴 벤느, 푸코-사유와 인간, 이상길 역, 웅진씽크빅, 2009, p.87참조

41) 비역사적인 것이란 하나의 한정된 지평 또는 시대 속에 가둘 수 있는 기술, 또는 담론을 말한다.